

##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정 인 경\*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

### A Study on Perception of Teachers on the Nutri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Jung, In-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activating schemes of nutri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We examined the nutrition education status and perception of teachers on nutri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subjects were 263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All data in this research was analyzed through SAS program, an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n each question were calculated. Data for each group was analyzed according to sex and teaching career and the groups were treated for significance by using chi-square test. Most of teachers taught the nutrition education as a part of practical art curriculum and thought that stu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on nutrition education was high. And the teachers understood that nutrition education at school curriculum is very necessary and effective. But most teachers had no experience of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nutrition education. They thought it was difficult to carry out nutrition education in school because of their poor nutritive knowledge, and lack in educational materials. Moreover, it is revealed that the teachers supposed that the activation of nutrition education in school requires schools to provide nutritive guidance to students in cooperation with the homes.

주제어(Key Words) : 영양교육(nutrition education),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교사인식(perception of teachers)

---

## I. 서 론

아동기는 비교적 완만하고 꾸준한 성장속도를 나타내는 시기로 이 시기의 좋은 영양공급은 성장발육의 기초의 조성 과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향상에 필요하며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 되면서 가정에서의 식생활이 편의위주로 치우쳐 가공 및 즉 석 식품이 범람하게 되었고, 외식 및 매식의 빈도가 증가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들도 인스턴트식품 및 패스트푸 드를 선호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던 아 동의 영양과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편식과 결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결핍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박미정 등, 2003; 이난숙 등, 1997).

이러한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가치관 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이 시기에 식생활 지도 및 영양교 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이윤주 등, 2000).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교육 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 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생활 전반에 있어 가정에서의 교육 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자녀의 식습관이나 식사예절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부 분의 일과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올바른 식사관리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 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 하다.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이 실생활에 적용하여 잘못된 식습관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 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담임 교사는 아동의 식습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이기 때문에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백정자, 1990; 홍중관, 2002). 특히, 저학년의 경우 담임교 사가 제시한 방법이나 요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 교사에 의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필 요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에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록 영양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정규 수업시간을 할당받지 못하여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 며, 또한 여러 교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내용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여 바람 직한 식습관의 형성이나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매 우 부족하다(구재옥, 1999). 이에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기는 하였으 나 주로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의 방안 및 그 효과, 영 양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실태 등에 대한 연 구들로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과지도 및 생활지 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영양교사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는 '영양관리, 식사예절, 식습관, 식품위생, 음 식환경' 등에 대한 영양교육 내용은 현재 초등학교 실과교 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영양교육을 정규교과목으 로 추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차 통합교육과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로 새로운 교과과정 추가요구가 나올 때 마다 새로운 교과목을 추가하고 교원신분을 남발 한다면, 정규 교육과정 체계 및 효율성의 침해와 함께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 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 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 한 문제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 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조사는 2004년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오산, 용인, 수원, 화성 지역에 소재 한 11개교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서은나, 1998; 이호철, 2002; 허은실, 2002; 정 은자, 1996; 문수재, 1994)를 참고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으며,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주로 객관식 문항이었

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및 지도 실태 관련 8문항, 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14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초등학교의 사전 협조를 받아, 각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 하였다. 총 28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후 이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63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의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8.2)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성별, 교직경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어 각 문항에 대하여 성별과 교직경력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각 변인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chi^2$ -test와 Fisher의 정확성 검정으로  $\alpha=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N(%)
성 별	남	57(21.7)
	여	206(78.3)
연 령	20대	79(30.0)
	30대	80(30.4)
	40대	81(30.8)
	50대	23( 8.8)
	교과전담	30(11.4)
담당학년	1학년	37(14.1)
	2학년	40(15.2)
	3학년	34(12.9)
	4학년	37(14.1)
	5학년	45(17.1)
	6학년	40(15.2)
교직경력	10년 미만	125(47.5)
	10년 이상	138(52.5)
계		263(100.0)

본 조사 대상자인 초등학교 교사 263명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교사가 21.7%, 여자 교사가 78.3%로서 경기 공립초등학교의 남녀교사 비율과 유사하다(교육부, 2003). 연령 대는 20, 30, 40대가 각각 30%, 30.4%, 30.8%로 나타났다. 담당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14.1%, 2학년이 15.2%, 3학년은 12.9%, 4학년 담임이 14.1%, 5학년은 17.1%, 6학년 교사는 15.2%와 교과 전담 교사가 11.4%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교직 경력은 10년 미만인 교사가 47.5%, 10년 이상이 52.5%로 조사되었다.

#### 2.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실태

##### 1)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담당자 및 담당 교과

현재 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및 실시 교과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63.5%가 현재 식생활 교육을 학교영양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담임교사(34.2%)의 순이었다. 이는 박정아 등(2004a)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이 학교 급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영양교육의 담당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 비해 학교 영양사가 식생활 교육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많아 여자교사가 남자 교사에 비해 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p<.05$ ). 그러나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허은실, 2002; 서은나 등, 1998)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영양교육을 교과과정 내 연관되는 과목을 통해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 정규 과목에 대한 조사결과, '실과'(43.0%)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체육'(29.3%), '도덕'(11.8%), '자연'(3.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자 교사는 주로 '실과'(52.6%)와 '체육'(35.1%)을 통해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반면 여자 교사의 경우 '실과'(40.3%)와 '체육'(27.7%) 및 '도덕'(13.1%)

등 다양한 교과를 통해 폭 넓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에 따라 비교해 볼 때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들에 비해 '도덕' 및 '체육'교과에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은나(1998)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 담당교과로 '체육'(28.9%), '실과'(25.6%), '자연'(17.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허은실(2002)의 연구에서도 '체육'(48.0%), '실과'(27.0%), '도덕'(18.0%)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 자연 교과 과정 내에 영양과 건강, 식생활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던 반면 2002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연 및 체육 과목의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어 본 조사대상 교사들은 식생활 및 영양관련 내용이 주로 수록된 실과 교과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의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교사의 35.0%가 관심이 '많다', 55.1%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9.9%가 '관심이 없다'로 응답하여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정도는 보통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남자교사들이 여자교사들에 비해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한 관심 정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 10년 미만인 교사들에 비해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전체 교사의 50.2%가 식생활 교육 관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높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39.9%, '낮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9.9%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실

〈표 2〉 식생활 교육 담당자 및 교과

	성 별		전체	교직경력		N(%)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담당자					
담임교사	16(28.1)	74(35.9)	90(34.2)	50(40.0)	40(29.0)	
학교영양사	38(66.7)	129(62.6)	167(63.5)	72(57.6)	95(68.8)	
실과전담교사	0(0.0)	2(1.0)	2( 0.8)	1(0.8)	1(0.7)	
외부강사	0(0.0)	0(0.0)	0( 0.0)	0(0.0)	0(0.0)	
기타	3(5.2)	1(0.4)	4( 1.5)	2(1.6)	2(1.5)	
	χ <sup>2</sup> = 8.17*			χ <sup>2</sup> = 3.65		
교과						
도덕	4(7.0)	27(13.1)	31(11.8)	8(6.4)	23(16.7)	
자연	0(0.0)	8(3.9)	8(3.0)	2(1.6)	6(4.4)	
체육	20(35.1)	57(27.7)	77(29.3)	32(25.6)	45(32.6)	
실과	30(52.6)	83(40.3)	113(43.0)	63(50.4)	50(36.2)	
기타	3(5.3)	31(15.0)	34(12.9)	20(16.0)	14(10.1)	
	χ <sup>2</sup> = 9.34*			χ <sup>2</sup> = 13.40**		

\*p<.05, \*\*p<.01

2) 실과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교육 현황

실과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 관련 수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관심도 및 학생들의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3〉

교과과 내용 영역 중 식생활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생들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는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건강이나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교생들이 적극적으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미영, 2003). 교직경력에 따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식생활 관련 수업 참여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의 경우 47.1%, 10년 미만인 교사들의 경우 32.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0년 미만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식생활 관련 수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통한 식생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한 관심 및 의식 고취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생활 및 영양교육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전체 교사의 81%가 '연수 참여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식생활 및 영양교육 관련 연수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9.1%)', '과다한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5.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과 연수 실태를 조사한 연구(장영진, 2002)에서도 연수 기회가 매우 적어 초등학교 교사들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식생활 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표 3> 실과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현황

N(%)

		성 별		전체	교직경력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교사의 흥미정도	높다	14(24.6)	78(37.9)	92(35.0)	32(25.6)	60(43.5)
	보통이다	36(63.1)	109(52.9)	145(55.1)	74(59.2)	71(51.4)
	낮다	7(12.3)	19(9.2)	26(9.9)	19(15.2)	7(5.1)
		$\chi^2 = 3.53$		$\chi^2 = 13.51^{**}$		
학생의 수업 참여정도	높다	23(40.4)	82(39.8)	105(39.9)	40(32.0)	65(47.1)
	보통이다	28(49.1)	104(50.5)	132(50.2)	66(52.8)	66(47.8)
	낮다	6(10.5)	20(9.7)	26(9.9)	19(15.2)	7(5.1)
		$\chi^2 = 0.05$		$\chi^2 = 10.88^{***}$		

\*\*p<.01, \*\*\*p<.0001

### 3) 식생활교육 관련 연수 경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교사의 4.9%만이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교사들이 식생활 교육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관련 연수 경험율을 조사한 서은나 등(1998)의 연구에서도 연수 경험율이 6.6%로 매우 낮았으며, 경남지역 초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한 윤현숙 등(2001)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9.0%만이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 초등학교 교사들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연수 참여 실태는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과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교사의 94.0%나 되어 식생활 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과 전담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도를 조사한 장영진(2002)의 연구에서도 가정과학영역 중 식품조리와 식사, 아동의 영양 등의 식생활 내용에 대한 연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식생활 관련 교육내용이 실과 연수 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구의 연구결과(Weiss 등, 1987; Shannon 등, 1981)에서 영양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에 비해 영양지식이 높고, 영양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며, 수업준비 태도 또한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영양지식을 높이고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생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식생활교육 관련 교사 연수 경험

N(%)

		성 별		전체	교직경력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연수 참여 경험	있다	4(7.0)	9(4.4)	13(4.9)	6(4.8)	7(5.1)
	없다	53(93.0)	197(95.6)	250(95.1)	118(95.2)	131(94.9)
		$\chi^2 = 8.46$		$\chi^2 = 0.01$		
연수 불참 이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4(7.5)	12(6.1)	16(6.5)	8(6.9)	8(6.1)
	연수 참여 기회가 없어서	44(83.0)	156(80.4)	200(81.0)	93(80.2)	107(81.6)
	필요가 없어서	2(3.8)	6(3.1)	8(3.2)	4(3.5)	4(3.1)
	업무과다로	2(3.8)	10(5.2)	12(4.8)	4(3.5)	8(6.1)
	기타	1(1.9)	10(5.2)	11(4.5)	6(5.1)	4(3.1)
		$\chi^2 = 1.43$		$\chi^2 = 2.81$		
연수 참여 의향	있다	51(96.2)	183(93.4)	234(94.0)	105(88.2)	129(99.2)
	없다	2(3.8)	13(6.6)	15(6.0)	14(11.8)	1(0.8)
		$\chi^2 = 0.60$		$\chi^2 = 13.27^{**}$		

\*\*p<.01

3.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

본 조사대상 교사의 97.3%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표 5). 이러한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며(서은나 등, 1998; 허은실, 2002; 박정아 등, 2004, 김경애 등, 2004), 행정관리자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미 등, 2001; 염초애 등, 1995)에서도 식생활 교육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정과 연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26.6%)', '가정에서의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

상으로 조사한 이경애(2004)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식습관 지도 장소로 학교와 가정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정인경(2004)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가정에서의 식생활 지도와의 연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식생활 및 영양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연계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해 성별과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실과교육 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학생들의 식습관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교사의 87.0%가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또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하여 실과교과 과정을 통한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과 교육경력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들이 10년 이상의 교사들에 비해 실과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표 5〉 식생활교육 필요성 및 효과

N(%)

		성 별		전체	교직경력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필요성	필요하다	54(97.7)	202(98.1)	256(97.3)	119(96.0)	136(98.6)
	필요하지 않다	3(5.3)	4(1.9)	7(2.7)	5(4.0)	2(1.4)
		$\chi^2= 2.16$		$\chi^2= 2.78$		
필요 이유	가정에서의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10(17.5)	52(25.2)	62(23.6)	34(27.7)	28(20.3)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29(50.9)	97(47.1)	126(47.9)	61(49.6)	65(47.1)
	학교에서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17(29.8)	53(25.8)	70(26.6)	26(21.1)	44(31.9)
	기타	1(1.8)	4(1.9)	5(1.9)	2(1.6)	1(0.7)
		$\chi^2= 2.38$		$\chi^2= 4.82$		
효과	매우 도움이 된다	0(0.0)	3(1.4)	3(1.1)	1(0.8)	2(1.4)
	도움이 된다	53(93.0)	173(84.0)	226(85.9)	102(81.6)	124(89.9)
	도움이 안된다	4(7.0)	29(14.1)	33(12.6)	21(16.8)	12(8.7)
	전혀 도움이 안된다	0(0.0)	1(0.5)	1(0.4)	1(0.8)	0(0.0)
		$\chi^2= 3.30$		$\chi^2= 5.30$		

\*\*p<.01, \*\*\*p<.0001

응답을 한 경우가 다소 많았다.

2)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담당 적임자 및 운영형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담당 적임자 및 운영형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교에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담당 적임자를 묻는 문항에서 학교영양사(47.2%), 담임교사(40.3%), 기타(7.2%), 전문 외부강사(3.8%), 전담교사(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조사된 현 식생활교육의 담당자 실태 결과에서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34.2%)과 비교해 볼 때, 담당 적임자로 담임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40.3%)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대상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담임교사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담임교사가 적임자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아동들의 식생활습관을 담임교사가 급식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므로', '담임교사가 매일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학생과 접하며 신뢰받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보여 매일 함께 생활하면

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영양사라고 응답한 경우, '식생활을 담당하며 영양에 대한 균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지니므로 교육효과가 증대되므로' 등의 영양관련 전문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교육을 받은 영양사가 영양교육의 적임자라고 보고 된 다른 연구결과(구체육 1999, 허은실 등 2002)와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실제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박정아 등(2004 b)의 연구결과에서 영양사들은 담임교사를 현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적임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오히려 영양사들의 경우 학교 급식 관리 등의 과도한 업무로 현실적으로는 직접 영양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업시간에 담임교사가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교과나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일상생활 중 틈나는 대로 실시'가 25.5%, '학교 급식시간에 실시' 23.2%, '특별활동 시간에 실시' 9.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영양교육은 수업시간 중 관련 교과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서은나(1998)와 김경애(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담임 교사가 관련 수업시간에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결과(박정아 등 2004 b, 허은실 2002, 천중희 등 1999)에서 대부분의 영양사들은 정규수업시간을 할당 받아 영양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며 학교 급식을 통한 간접적인 식생활 교육은 정보 제공이 제한되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수업시간을 이용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담임교사들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실과 교육과정을 통한 식생활 교육 내용

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내용의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으며 '적당하다'(41.4%), '많다'(2.7%)의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현재 실과 교육 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호철(2002)의 연구에서도 전체 교사의 76.9%가 실과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교육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현 초등학교 실과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교육만으로는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 식생활 관련 내용의 보충이나 학습시간의 증가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 경력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10년 이상의 교사들의 67.4%가 실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10년 미만의 교사들의 경우 43.2%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실과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 영역에 보충 되어져야 할 내용으로는 '식생활과 질병'(45.3%), '성장과 영양'(25.1%), '식사 예절'(22.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

<표 6> 식생활교육 담당직임자 및 운영 형태

N(%)

	성 별		전체	교직경력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담당 직임자	담임교사	22(38.6)	84(40.8)	106(40.3)	48(38.4)	58(42.0)
	학교영양사	26(45.6)	98(47.6)	124(47.2)	61(48.8)	63(45.7)
	실과전담교사	2(3.5)	2(0.9)	4(1.5)	8(6.4)	11(8.0)
	외부강사	2(3.5)	8(3.9)	10(3.8)	3(2.4)	1(0.7)
	기타	5(8.8)	14(6.8)	19(7.2)	5(4.0)	5(3.6)
		$\chi^2 = 2.24$			$\chi^2 = 1.81$	
운영 형태	관련교과를 통해	21(36.8)	66(32.0)	87(33.1)	37(29.6)	50(36.2)
	특별활동을 통해	5(8.8)	20(9.7)	25(9.5)	9(7.2)	16(11.6)
	특강시간에	2(3.5)	19(9.2)	21(8.0)	9(7.2)	12(8.7)
	일상생활 속에서	18(31.6)	49(23.8)	67(25.5)	35(28.0)	32(23.2)
	학교급식시간에	11(19.3)	50(24.3)	61(23.2)	34(27.2)	27(19.6)
	기타	0(0.0)	2(1.0)	2(0.7)	1(0.8)	1(0.7)
	$\chi^2 = 4.27$			$\chi^2 = 4.64$		



울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이호철, 2002)에서는 '식생활 예절(36.6%)', '비만 및 성인병에 관한 내용(22.4%)', '식품조리에 관한 실습 내용'(21.3%)'의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주로 '식생활 예절'과 '식생활과 질병' 관련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연구에서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편식 및 결식의 습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염초애 등, 1995).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인경(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편식 및 결식 습관, 바람직하지 못한 간식 습관 등의 식습관 교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영양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생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교사들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과교육과정에 보충되어지길 바라는 내용에 대해 교사의 성별 및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식생활 교육 시 어려운 점

실과교육과정을 통한 식생활교육 지도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실과교육과정을 통한 식생활교육 지도 시 어려운 점으로 전체 교사의 30.8%가 '수업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의 부족'이 26.2%를 차지하였고, '교사의 식생활 및 영양에 관한 지식 등의 전문성 부족'이 25.9%, '교과시간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5.2%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호철(2002)의 연구에서도 실과 교육과정을 통한 식생활 지도 시 문제점으로 '실습실의 부재'(46.6%), '실습기자재의 부족'(27.7%), '학습자료의 부족'(10.5%) 순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식생활 교육 관련 수업자료나 시설의 부족이 초등학생들의 식생활 교육 지도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식생활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자료와 구체적인 지도안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전문성 부족' 때문에 식생활 지도가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도 25.9%나 되어 교사들의 영양관련 전문지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 등의 지속적인 재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실과 교육과정을 통한 식생활 교육 내용

		성 별		전체	교직경력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교육 내용 정도	많다	1(1.8)	6(2.9)	7(2.7)	4(3.2)	3(2.2)
	적당하다	24(42.1)	85(41.3)	109(41.4)	67(53.6)	42(30.4)
	부족하다	32(56.1)	115(55.8)	147(55.9)	54(43.2)	93(67.4)
		$\chi^2 = 0.23$			$\chi^2 = 15.62^{**}$	
보충해야할 내용	식생활 예절	12(21.0)	48(23.3)	60(22.8)	25(20.0)	35(25.4)
	성장과 영양	17(29.8)	49(23.8)	66(25.1)	33(26.4)	33(23.9)
	식품조리에 관한 실습	2(3.5)	1(0.5)	3(1.1)	1(0.8)	2(1.5)
	비만 등 식생활과 질병	21(36.8)	98(47.6)	119(45.3)	60(48.0)	59(42.7)
	식품위생	5(8.8)	8(3.9)	13(4.9)	4(3.2)	9(6.5)
	기타	0(0.0)	2(1.0)	2(0.8)	2(1.6)	0(0.0)
		$\chi^2 = 8.17$			$\chi^2 = 5.30$	

\*\*p<.01

<표 8> 실과 교육과정을 통한 식생활 교육 지도 시 어려운 점

	성 별		전체	교직경력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교과목시간의 부족	8(14.0)	32(15.5)	40(15.2)	18(14.4)	22(15.9)
수업자료의 부족	20(35.1)	61(29.6)	81(30.8)	39(31.2)	42(30.4)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의 부족	16(28.1)	53(25.8)	69(26.2)	31(24.8)	38(27.6)
교사의 영양지식 및 전문성 부족	12(21.0)	56(27.2)	68(25.9)	34(27.2)	34(24.6)
기타	1(1.8)	4(1.9)	5(1.8)	3(2.4)	2(1.5)
	$\chi^2 = 1.55$			$\chi^2 = 2.59$	

5)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교사의 38.8%가 '가정과의 연계지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교급식(영양사)과의 연계지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34.6%),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표5)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성별에 따라 살펴볼 때 여자교사가 남자교사에 비해 '가정과의 연계지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와 '학교급식과의 연계지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교사는 여자교사에 비해 '참고자료 개발이 필요하다'와 '전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윤현숙 등(2000)이나 노정숙(2001)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정과의 연계지도체제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영양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혜자(1995)의 연구결과와 아동과 부모의 영양교육을 함께 실시하였을 때 아동의 식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였다는 이보숙(2004)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식생활 및 영양교육

<표 9>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

	성 별		전체	교직경력	
	남	여		10년 미만	10년 이상
학교급식과의 연계지도	15(26.3)	76(36.9)	91(34.6)	40(32.0)	51(37.0)
교사의 지속적인 재교육	5(8.8)	24(11.6)	29(11.8)	17(13.6)	12(8.7)
가정과의 연계지도	18(31.6)	84(40.8)	102(38.8)	53(42.4)	49(35.5)
참고자료의 개발	11(19.3)	15(7.3)	26(9.9)	10(8.0)	16(11.6)
전담교사의 배치	8(14.0)	7(3.4)	15(5.7)	5(4.0)	10(7.2)
	$\chi^2 = 18.13^{**}$			$\chi^2 = 4.77$	

\*\*p<.01

의 활성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효율성면에서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실태와 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 해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 특히, 남자교사가 여자교사에 비해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가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식생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정규과목 중 주로 실과 및 체육 과목을 통해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직경력 이 많은 교사들이 적은 교사들에 비해 다양한 교과를 통해 폭 넓게 가르치고 있었다. 또한 실과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교사의 관심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식생활 교육 방법 및 다양한 교재 개발 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교사의 대부분이 가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은 꼭 필요하며, 이러한 식생활 교육은 학생들의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관련 교과를 통해 담임선생님이 실시·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식생활 교육 관련 수업자료나 시설의 미비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실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에 관련한 연수경험 및 참여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식생활 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영양정보 및 자료, 다양한 교수 방법 등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질병' 및 '성장 과 영양' 등의 내용이 실과교과 내용에 보충되어야 하며 가정 및 학교 급식의 연계 지도를 통해 식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실과교과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영양에 대한 관심 및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식 고취가 매우 요구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교육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교육 및 식생활 관련 연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수업시간 뿐 아니라 급식 시간에도 식생활 교육이 연속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와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교육통계, 교육부, 2003.

구복자(1999). **초등 실과 영양교육을 위한 아동들의 식습관 조사**, 부산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미, 이심열(2000).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영양지식 및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영양사회 학술지**, 6(2), 97-107.

김경애, 정난희, 오순화(2004). 초등학교 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7(2), 13-30.

김혜자(1995). **식생활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학동기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청구교육대학교 논문집, 32, 339-377.

노정숙(2001).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 및 실태 조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문미영(2003). **제7차 실과 교육과정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의 인식과 영역별 학습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수재, 이명희, 이영미, 조성숙, 이민준, 이승미(1994). **영양교육 - 실무와 실습을 위한 핸드북**. 효일문화사. 서울.

박미정, 박금순, 박운재(2003). 초등학교의 식습관과 영양지식 및 건강상태 조사. **동아시아식생활 학회지**, 13(6), 568-576.

박정아, 장경자(2004a). 인천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9(6), 716-724

박정아, 장경자(2004b).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영양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7(1), 928-937.

백정자(1990) 국민학교 교사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30, 85-97.

서은나, 김초강(1998). 초등학교 영양교육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31(4), 787-798.

염초애, 김해리, 박혜련, 김향숙, 김상애, 박옥진, 신미경, 손숙미 (1995). 전국 국민학교 학부모와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대한영양사회 학술지**, 1(1), 89-95.

윤현숙, 노정숙, 허은실(2000). 경남 일부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교육 실시 현황,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1), 63-73.

윤현숙, 노정숙, 허은실(2001).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6(1), 84-90.

이경애(2004). 어머니의 영양태도와 영양지식이 초등학교 자녀의 비만발생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37(6), 464-478.

이난숙, 임양순, 김복란(1997). 초등학교 아동의 식습관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2), 187-196.

이보숙(2004). 초·중고 학생의 식생활 실태 및 인식 비교 연구,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0(3), 364-374.

이유준, 김경미, 장경자(2000). 인천시내 초등학교 학생의 영양교육 효과 분석. **대한영양사학회지**, 6(2), 86-96.

이호철(2002). **식생활 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영진(2002).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과전담 연수에 대한 요구도 조사**. 인천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논문.

정은자(1996).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교육실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6(1), 21-37.

정인경(2004). 초등학교 자녀의 영양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조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20, :27-43.

천종희, 최은옥, 홍성야, 우경자, 김영아(1999). 인천시 초등학교 급식운영 및 관리와 영양교육실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4), 417-429.

허은실(2002) **초등학교의 영양문제 및 영양교육 실태 파악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창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중관(2002).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아동전문' 생활 지도와 상담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학회지**, 15(1), 1-20.

Shannon BM, Marbach ES, Graves K, Sims L(1981). Nutrition knowledge, attitudes and teaching effectiveness of K-6 teachers, **J Nutr Educ.**, 13, 145-149.

Weiss EH, Kien CL(1987). A synthesis of research on nutrition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J Sch Health**, 57, 8-13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 실태와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로 실과 및 체육 과목을 통해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보통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식생활 및 영양교육은 꼭 필요하며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관련 연수 참여 기회가 매우 적고, 영양교육 자료와 시설의 부족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내용이 실과 교육 과정에 보충되어야 하며,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양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논문접수일자: 2005년 8월 10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11월 16일